

교수의 연구는 무엇인가?

— 조동일 교수의 ‘공개구직’ 논평 —

◇…최근 각 대학에서는 교수의 연구 활동을 전담 관리하는 연구처 등을 신설하고, 교수의 연구 업적을 승진·승급 및 포상에 직접 반영하는 등 교수의 업적평가가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대 조동일 교수(국문학)가 발표한 ‘공개구직’은 교수사회에 파문을 일으키며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 여건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지에서는, 대학사회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아래에 지난 4월 8일자 『교수신문』에 실린 조동일 교수의 공개구직서를 전재한 후, 이에 대한 장일조·서경호·이상섭·임재해 교수와 논평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조동일 교수가 네 분의 논평을 읽은 소감을 실었습니다. 편집자…◇

현 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새로운 직장을 공개적으로 구한다. 나에 관해서 알고자 하면, 우선 『우리 학문의 길』(지식산업사, 1993)을 보아주기 바란다. 최근에 『세계문학사의 허실』(지식산업사, 1996)을 내놓는 기회에 재출발을 하고자 한다.

그 두 책을 읽지 않고, 아래에 쓴 것만 보고 시비를 가리거나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부적당하다. 아래에 쓴 내용의 미비사항이나 심층적인 이유는 모두 그 두 책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의 대학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연구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먼저 말하고

자 한다. 전반적인 사정에서 개인의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첫째, 교육법시행령에 명시한 바와 같이, 한국의 교수는 주당 10시간 강의를 해야 하므로, 지식의 전달자이기는 해도 지식의 생산자일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내가 직접 가서 강의를 한 외국의 세 대학을 보면, 파리 대학, 도쿄 대학 교수는 주당 4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중국 연변 대학의 경우는 그보다도 강의시간수가 적었다. 한국에는 연구에 치중하는 교수와 강의에 치중하는 교수를 구분하는 제도도 없다.

모든 교수가 한결같이 지식의 전달자 노릇을 하도록 제도화해 놓고 연구를 하지 않

는다고 다그친다. 그래서 대단위 연구는 불가능하게 한다. 지금은 우리 학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세계적인 연구를 해야 할 때인데, 그런 일은 하지 못하게 원천봉쇄해 놓았다.

둘째, 연구를 할 수 있는 도서가 크게 부족하다. 한국학 분야는 필요한 도서를 개인적으로 사모을 수도 있으나, 연구의 범위를 외국과의 비교연구로 확대하자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대학도서관이 충실해지기를 기다려 연구를 한다면, 내 평생에는 불가능하다.

대학도서관에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사서가 없고, 책을 사모으는 방식이 비능률적이다. 교수가 직접 책을 사서 도서관에 넣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엔 책 『세계문학사의 허실』을 위해서 여러 나라에 가서 책을 사고, 복사를 해야 했다. 앞으로 ‘세계문학사의 이론’(전 6권으로 예상), ‘세계문학사의 전개’를 완성하려면, 참고서적 부족이 심각하다.

셋째, 도서를 개인적으로 사 모은다 해도 둘 자리가 없다. 집도 연구실도 초만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몸 돌릴 공간도 남아나지 않는다. 개인이 책을 모아 연구를 하는 것은 그 때문에도 불가능하다.

넷째, 강의해야 할 과목이 고정되어 있어, 새로운 연구를 강의에서 발표하고 토론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에서 나는 여러 해 애 쓴 끝에 교양선택 과목은 여러 학문분야에 걸친 새로운 강의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전공과목 특히 대학원 과목은 기존의 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연구의 진전에 맞추어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다른 모든 교수가 동의한 다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아주 힘들다.

대학개혁은 개혁을 하겠다는 교수가 연구

와 강의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허용하기만 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하지 않겠다는 교수들까지 모두 합의해서 일제히 하려고 한다. 개혁의 핵심은 새로운 과목을 설정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강의할 수 있는 것임을 모르고, 주변적이고 비본질적 사항만 두고 불필요한 협의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여건 때문에 연구를 하다가 말 수밖에 없다. 연구비를 많이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5백만 원짜리 연구비를 받아 3백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쓰기 위해서 밟아야 할 절차가 너무 번다하고, 제약 조건이 지나치다. 통상적인 연구비는 학회지에 발표하는 논문만 쓰라고 준다. 학회지 발표 논문은 2백자 원고지로 130장 이내인데,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은 몇 천 장씩 되는 것이어서 수용 불가능하다. 한국의 학자를 단편 작가로 묶어 두고, 장편은 쓰지 못하게 규제한다. 논문을 해마다 내야 하므로, 여러 해 애써서 큰 분량의 전작 저서를 내놓으면, 업적이 부실한 교수로 지목된다. 어떤 저서라도 논문 한 편과 같은 점수다.

지금 내 나이인 57세쯤 되면 거의 모든 교수가 불가능한 연구는 그만두고, 강의나 하는 수밖에 없다. 젊은 시절에는 강의와 연구의 병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지금 나이 이후에는 둘 중 하나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를 버리고 강의를 택하는 것이 교수의 본분이라고 하지만, 교수의 본분이 그쪽뿐인가 묻고 싶다. 강의는 공적인 일이니 우선해야 하고, 연구는 사적인 일이니 뒤로 돌려도 그만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타당한가 묻고 싶다.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결과는 강의라고 인정할 수 없는가.

연구비를 많이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시간도 없고

책도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국의 교수는 초인적인 건강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는가? 연구비가 생겨난 다음에 교수들이 절대빈곤에서는 벗어나 다행이지만, 이제는 연구를 실제로 할 수 있게 해야 할 때이다. 연구비를 준다는 데 휘말려서, 계획서를 쓰고, 결과 보고를 하고, 돈 계산을 하고, 각종 규제를 지키느라고 지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런 미끼나 그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하고 싶다.

이런 이유로 나는 지금 결단을 내려, 『세계문화사』 3부작 8권의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강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다음 조건의 직장을 구한다. 국립대학은 제도상 가능할 것 같지 않으므로 사립대학에 호소한다. 사립대학에서도 불가능하면 교수 신분은 버리고서라도 할 수 있기 바란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의 부담이 없어야 한다. 논문지도와 심사, 행정업무, 학사업무, 임시관계 업무도 전혀 맡지 않는다. 그 대신에 뛰어난 연구결과를 내놓아 소속대학을 빛내고, 사회에 기여하고 나라와 인류를 위해 일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든가 하는 의무도 없어야 한다. 외부의 연구비는 받지 않겠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 도서구입비 1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 그 돈으로 산 책은 물론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서도 모두 소속 대학도서관의 도서로 한다. 정년퇴임할 때에는 빈손으로 나올 작정이다. 사립대학의 기존 도서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도서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서울대학교의 도서는 내 연구의 참고문헌 가운데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연구에 필요한 책을 즉각 구입하고, 복사해 모을 수 있어야 연구진행이 가능하다. 도서를 구입하고 복사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출장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럴 수 없다면 1천만 원의 일부를 할애해서 충당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를 위해서 30평 정도의 연구실이 있어야 하겠다. 서고와 연구실을 나누면, 연구실은 보통 넓이어도 된다.

네 번째 문제를 위해서 누구나 아무런 절차도 없이 청강할 수 있는 공개강의를 한다. 공개강의 수강은 학점 취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개강의 시간은 매주 90분짜리 두 번이 적당하고, 한 번은 나의 기존저서 30여 종을 차례대로 다루고, 한 번은 새로운 연구를 발표하고자 한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계문화사』 3부작 전 8권을 완성해서, 우리 역량으로 세계학문의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하는 희망을 달성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이 요청서를 만든다. 국민소득이 만 불을 넘어섰다 하고, 21세기 초일류 선진국가를 만들겠다는 말이 되풀이 되고, 수십 억에서 수천 억까지의 부정축재가 다반사인 다른 한편에서, 국립서울대 교수가 이처럼 비통한 소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뜻을 함께하는 다른 여러 학우들과 함께 나아가야 하니, 그 모두에게 혜택과 격려가 있기를 바란다. 위에서 든 희망을 달성해주는 국립연구기관이 생기는 것은 사립대학에서 힘쓰는 것보다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장치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사립대학이 앞서서 자극을 주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정치 때문에 온 국민이 과열되어 있는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음을 학문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